

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제 목     | 국 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강진단 전날 과로 및 음주가 검사결과에 미치는 영향   |  |
|         | 영 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The effect to laboratory findings by exhaustion and alcohol drinking on previous day of health check  |  |
| 저자 및 소속 | 국 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김동일 <sup>1)</sup> , 서병성 <sup>1)</sup> , 정갑열 <sup>2)</sup> , 김준연 <sup>2)</sup> ,<br>1)근로복지공사창원병원 보건관리센터,<br>2)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및 산업의학연구소  |  |
|         | 영 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Dong Il Kim <sup>1)</sup> , Byung Seong Suh <sup>1)</sup> , Kap Yull Jung <sup>2)</sup> , Joon Youn Kim <sup>2)</sup><br>1)Korean Labour Welfare Corporation Changwon Hospital.<br>2)Dep.of Pre.Me and The Ind.Med.Research<br>Instirute,Dong-A Univ.College of Med |  |
| 분야      | 환경의학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발표자   |  |
| 발표 형식   | 포스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발표 시간   |  |
| 진행 상황   | 연구완료 ( ), 연구중 ( ) → 완료 예정 시기 : | 년 월   |  |

### 1. 연구목적

정상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첫째 단기간의 변동을 초래하는 식이, 운동, 투약등과 둘째 그 영향이 오랜기간에 걸치는 연령, 성별, 인종차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. 그러나 이러한 인자들의 인체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되어져야 할 부분으로 남아 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검사자는 피검자에게 검사전날 음주 및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것을 권유하고 있다. 본 연구에서는 검사전날 음주와 과로를 행한 실험군과 이에 대응 하는 대조군에서의 검사결과를 비교함으로서 과음과 음주가 검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며 나아가 정확한 검진을 위한 검사전날 피검자의 주의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.

### 2. 연구 방법

모 자동차 제조회사 93년도 대졸 신입사원(인턴사원) 채용전 신체검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6월 21일날 시행한 103명에 대해서는 검진전날 정신교육 및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하였으며, 7월 8일날 시행한 104명에 대해서는 검진전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전원 왕복 6km정도의 산행을 포함한 극기훈련과 당일 저녁에 개인별 택주 2병-4병(순알콜량: 83-166그램)을 전원에게 섭취하도록 하였다. 실험군에 대한 극기 훈련 및 음주태도는 채용단락에 일부 반영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었으므로 특별한 낙오자는 없었다. 검사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채용 신체검사시 법적항목에 준해 실시하였으며 실험군과 대조군의 결과비교는 t-검정 및 X<sup>2</sup>-검정으로 비교검토하였다.

### 3. 연구결과

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실험군과 대조군에 있어 연령, 신장, 체중등 일반적 특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. 혈압은 수축기 및 이완기 모두 실험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며 혈구용적치는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. 총콜레스테롤은 실험군에서 증가를 나타내었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, 일반적인 간기능을 나타내는 s-GOT 및 s-GPT는 두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. 요검사상 요당/요단백/요잠혈 양성반응자가 실험군에서는 4/4/4명으로 대조군의 0/3/2 명보다 증가되었다.

표 1. T-검정을 이용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채용신체검사 결과의 비교

| 변수<br>(단위)            | 실험군<br>평균(표준편차) | 대조군<br>평균(표준편차) | p-값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|
| 대상자(명)                | 104             | 10              |      |
| 연령 (세)                | 24.78( 1.01)    | 24.53( 0.92)    | 0.27 |
| 신장 (cm)               | 171.31( 6.13)   | 169.85( 5.37)   | 0.1  |
| 체중 (kg)               | 63.71( 8.53)    | 61.90( 7.18)    | 0.1  |
| 수축기혈압(mmHg)           | 130.87(13.01)   | 122.04(10.88)   | 0.0  |
| 이완기혈압(mmHg)           | 83.56( 9.13)    | 77.96( 9.01)    | 0.0  |
| s-GOT(IU)             | 25.50( 5.68)    | 24.95( 8.22)    | 0.5  |
| s-GPT(IU)             | 19.47( 9.29)    | 20.66(11.09)    | 0.4  |
| T. cholesterol(mg/dl) | 176.76(30.63)   | 169.73(32.02)   | 0.1  |
| Hematocrit(%)         | 45.86( 2.00)    | 47.55( 2.47)    | 0.0  |

### 4. 고찰

건강인에서의 과도한 운동은 혈액농축등으로 혈색소 및 혈구용적치의 증가를 나타내나 운동후 과량의 음료는 혈액회석의 상태가 되므로 이의 감소를 초래할 수도 있다. 1-2잔의 음주는 혈관확장으로 혈압이 떨어지나 과량의 음주는 심부하(preload와 afterload)의 증가로 인해 혈압증가를 초래한다. 그외에서 무리한 운동과 음주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혈중 지질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

본 연구의 결과 검사전날 과로 및 음주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s-GOT, s-GPT 치의 상승을 초래하지는 않았으나 혈압, 혈구용적치, 요검사에는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으므로 검사전 날 과로와 음주를 피하라는 권유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.